
1995年度行政事務監査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市政開發研究院

日時 1995年11月27日(月) 午後2時
場所 市政開發研究院會議室

(14時 33分 監査開始)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第16조 내지 第17條의10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市政開發研究院長님 이하 任職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전 중에 電子計算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는 우리가 금년도에 6·27選舉 이후에 처음 하게 되는 行政事務監査입니다. 사실 다른 어떤 機關보다도 저희들은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民選自治時代에 서울시의 行政이 이제 과거의 慣行이나 제도적인 弊害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시민

이 바라는 욕구와 주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政策開發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面에서 앞으로 市政開發研究院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고 변화하는 行政需要를 측정하고 分析 豫測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市政의 中추적인 研究機關으로서 역량이 더욱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院長 이하 任職員께서는 우리 委員님들이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正직하고 성실하게 受監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市政發展에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當付를 드립니다.

다음은 證人宣誓가 있겠습니다.

宣書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36條第5項 및 同法施行令 第17條의4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僞證한 關係官은 告發될 수 있으며, 委員會의 出席要求를 받은 자가 正당한 이유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關係官은 正確하고 성실한 證言과 意見陳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는 研究院長과 研究部·室長 및 事務局長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關係官은 기립하시고, 院長은 發言臺에 나와 宣誓해 주시기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宣誓)

○委員長 文鎮珍; 다음은 研究院長 인사 및 研究院에 대한 幹部 紹介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에 幹部를 紹介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서울特別市議會 財務經濟委員會 文委員長님 이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研究院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찾아 주신 데 대해서 衷心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研究院은 그 동안 서울特別市議會 財務經濟委員會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쓰게 된 것도 財務經濟委員會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는 서울市議會 財務經濟委員會에서 議決을 하셔서 基金을 마련하는데 일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기금 3億원을 또 저희들에게 財務經濟委員會에서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부탁을 드린 바도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성실하게 答辯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좋은 말씀 많이 좀 해주시고 저희 研究院이 발전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幹部職員 認介가 있겠습니다.

(幹部認介 : 事務局長 金明柱, 企劃調整室長 韓泳秦, 都市計劃研究部長 金光中,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都市環境研究部長 金甲守, 都市經營研究部長 崔炳大, 社會開發研究部長 李繁松, 資料電算室長 張英姬, 研究委員 李洋宰, 總務課長 崔東根, 會計·管理課長 이후성)

다음으로 業務現況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業務現況報告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 여러분께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相男 委員님

○金相男 委員; 金相男 委員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豫算을 보면 서울市 出捐金이 55億원이고 기타가 2億 8,300萬원입니다. 그중에 受託事業收入이 2억 8,000萬원이 되어있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受託된 件數 22件이고 계속사업이 13件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강 계산해 보니까 受託事業이 한 32億정도 되는데 그리고 96年度에 계속되는 사업은 불과 한 2件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2億하고 2億 8,000萬원하고 受託事業에 受託事業研究費는 말하자면 研究課題 研究費로 쓰인다면 이것에 대한.....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이것은 저희들이 총액을 2억 8,300萬원이 總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利益金, 사업에 대한 이익금만을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한 것으로서.....

○金相男 委員; 그럼 한 30億정도는 研究費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명세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事務監査 資料라든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포함시켜서 설명해 왔습니다.

○金相男 委員; 30億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資料가 안 나와있

어요.

○企劃調整室長 韓泳奏; 지금 질문하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를 안해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원하시면 바로 거기에 대한 豫算 쓴 내역에 대한, 研究事業費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러면 다음 研究課題別로 거기에 대한 契約된 들어온 돈, 예를 들어서 契約금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完了되었을 때.....

○企劃調整室長 韓泳奏; 實行豫算을 짜서.....

○金相男 委員; 實行豫算을 짰는데 그것이 課題別로 實行豫算이 다 있다 말이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지요.

○金相男 委員; 그것 한 몇 개만 보여 주시죠, 나중에.....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金相男 委員; 22개 중에서 한 너덧 건만 보여 주시죠. 參考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一般豫算 57億 얼마에 한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特別會計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報告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研究院에서 人件費나 또는 각종 出張費나 事業費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것은 우리가 基礎研究일 때는 저희들이 市하고 충분히 協議를 하고 해서 연구프로젝트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55億이 나온 것입니다. 55億은 基礎研究에 대한 연구를 合算해서 한 것이 55億입니다. 나머지는 受託課題라는 것은 豫算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

런 것이 언제 受託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課題, 그때 가서 市가 行政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이것을 受託課題로 해 달라,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基本研究課題 38개에 대한 것만 豫算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金相男 委員; 55億원.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55億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때 그때 原價計算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그때 일정한 금액을 남겨서 조금씩 모아서 한 것이 바로 2億 8,000萬원이라는 것입니다.

○金相男 委員; 2億 8,000萬원이 순수한 利益金이고 나머지만 30억원 정도는 研究課題에 다 집행되었는데 執行된 내용을 어쨌든 그것도 研究院에서 쓴 돈이니깐 한번 제가 몇 개를 자료를.....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金相男 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이 監查資料 요청한 監查資料 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監查資料 31쪽에 있는 명세별로 契約額이 실제로 市政開發研究院의 수입이 된 것이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은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해서 따로 전부 검토해서 발주機關하고 전부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계산해서 전부 내역이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間接費를 추가적으로 오버헤드를 떼어서 모은 것이 지금.....

○金相男 委員; 2億 8,000萬원이 오버헤드코스트군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그러니까 契約額이. 추가적으로 여쭙 보고 싶은 것이, 會計로 따지면 總計로 되는 것인지 統計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보려고 하는데 혹시 出捐金은 이것과는 별도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豫算으로.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리고 受託研究課題 이 契約額은 여기에 지금 수입이 안 잡혀있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55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안 들어가 있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럼 거기에 대한 受託研究課題에 필요한 사업비도 역시 지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해서 그때 그때 프로젝트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따로 해서 하고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豫算을 할 때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基本研究 38個 課題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95年度豫算이 57억 8,300萬원이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배정한 豫算 그리고 受託課題로 발생된 契約額에서 발생된 收益金, 收益金이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利益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들어가 있고 全體金額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會計에서 보면

순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總額主義를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료가 서울시하고 관련해서는 55億과 나머지 2億 8,300萬 원 해서 57億 8,300萬원이 되겠지만 受託課題까지도 포함해서 연도별로 수입되는 것과 支出되는 것을 해서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쪽에 따로 損益計算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損益計算書 만드십니까, 따로?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만들고 있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委員長 文錫珍; 과제별로 損益計算書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全體 總括로 합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課題別로는 저희들이 豫算을 따로 프로젝트별로 집행을 하면서 研究責任者가 봐서 實行豫算의 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執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總額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지금 監査 中에 95年度 것은 아직 損益計算書가 나올리 없을 것이고 94年度 損益計算書, 여기에서 만들어진 대차대조표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提出해 주십시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疑問을 갖고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기보면 支出에 研究事業費, 經常運營費가 증감사항으로 보면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事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리고 지금 委員님 質問하

신 대로 저희들 38個 課題는 현재 우리 研究員 가지고는 그것은 사실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受託課題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외부의 위촉이 들어오고 막 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이 더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리고 외부에 受託을 하실때 契約書を 다 만드십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受託을 받을 때하고 다시 우리가 외부에 依賴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契約書を 만드십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다 만듭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러시면 監査 中에 아까 말씀드린 損益計算書하고 契約書 中에서 2億원이 넘는 件에 대해서 契約書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執行해 준 것에 대한 契約書を 寫本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金相男 委員;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依賴機關이 서울시 機關들입니다, 區廳 아니면. 그럼 이것도 결국 서울시 豫算으로 나가는거예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서울시민이 낸 稅金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55億에다 이 32億도 사실 96年度에 완료되는 事業은 2個밖에 없습니다. 30億원 정도가 결국 이 研究院으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돈이 80億원이 됩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서울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基本契約이 있고 受託契約이 있지만 결국 총괄

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쭙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쫓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質問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文錫珍; 네, 質問하십시오.

○金相男 委員; 採擇率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採擇率 우리 研究課題 해서 여기서 어떤 案이 나갔을 때 採擇率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採擇率에 대해서는 저희가 答辯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안하는 것은 서울 市에서 하기 때문에. 採擇率이 작년에 저희들이 研究管理審議委員會에서 이 株價率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交通局長이 하는 말이 交通研究分野는 採擇率이 100%다. 都市計劃局長 崔在範, 그 당시 局長입니다만 局長애기는 都市計劃分野는 80%정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던데 퍼센티지를 견수별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採擇率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어떤 것은 또 일부만 採擇되고 해서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은 採擇率이 다른 研究機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우리 나라의 國內研究所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大學에다 과거에 서울 市에서 위촉할 때는, 연구프로젝트를 할 때는 大學에서 대개 學問的으로 理論中心의 研究를 하기때문에 채택되더라도 그냥 케비닛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첫째로는 조사를 많이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調査費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受託課題에서 돈이 많은데 대부분이 調査費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調査員들을 交通問題같은 경우는 交通事故 頻度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하기 위해서 路線調整 같은

것을 할 때는 전부調查員을 써서 10名, 20名씩 써서 한 달씩 하고 調查를 해서 아주 調查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報告書를 작성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實務局長, 課長들 이 사람들을 研究過程에 꼭 참여시킵니다.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制度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檢討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불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왜 빠졌느냐 하게 되면 그것은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집어넣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市로 갔을 때는 市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채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率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다른 研究機關에 비해서는 제일 採擇率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相男 委員; 사실 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農水産物都賣市場도 지금 우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面에서는 責任回避性 受託도 많아요. 보면 자기들이 研究라도 좀 하려고 해도 좀 애매하고 이럴 때는 그냥 이 農水産物都賣市場은 칠천팔백몇십萬원인가 아마 하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金相男 委員; 그것이 赤字고 黑字도 잘 안납니다. 그런데 몇 千萬원, 한 칠천팔백얼마 들어서 受託研究프로젝트를 맡겼는데, 보면 어떤 面에서는 책임회피성, 研究院에 위탁을 했으니까 이런 案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많고, 執行部에서도 그런 책임회피성 受託 그런..... 그래서 한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필요한 研究課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院長님 말씀하신 대로 受託事業이 들어오면 實務者라든지 직접 다 상의해서 단행한다 그런 말

썸이시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實務者하고 상의한다기보다는 審議過程에 참여시킵니다.

○金相男 委員; 審議過程에…….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러니까 저희 研究員들이 합니다. 審議委員會를 審議委員들 5名 내지 6名이 하는데 저희 研究院에서 한두 사람 들어가고, 外部의 教授들 한 셋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1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研究를 하겠다, 研究의 計劃을 짜서 할 때도 그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는 서울시의 목소리는 별로 없고 주로 교수들의 목소리가 큼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연구가 진행되는 중간 썸에 가서 또 한번 審議를 합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審議하게 되면 잘못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막판에 왔는데 고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또 한 번 審議를 해서 檢討한 다음에 서울시 의견도 얘기하게 하고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名 中에서 서울시는 1名입니다.

1名인데 그러나 그것을 빼놓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實務的으로 이런 것이 빠졌다, 앞으로 여기에 이런 연구를 좀더 해달라, 그럼 그런 것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最終研審이라고 해서 과정이 끝난 후에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質을 높이기 위해서 研審委員들이 혹시 시간이 없어서 적당히 審議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博士學位 論文式으로 이 審議研究課題는 審議委員은 누구 누구 책임하에서 審議했다는 것을 앞에다 이름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자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적당히 할수도 없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公務員이 와서 할 때는 採點을 하는데요. 採點한 결과를 가지고 勤務成績評定, 採點結果를 가지고 院長이 考課를 매겨서 昇進시킬 때나 이럴 때 參考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死活問題가 달려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대신 6名 中에서 서울시 公務員들이 채점을 매긴 것은 종합채점 할 때는 빠집니다. 評價는 하게 하지만 빠집니다. 그 만큼 서울시의 영향력이 약한 편이지요. 그러나 이 분들의 意見을 꼭 들어야만 實務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研究해 달라, 이것이 빠졌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려운 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달라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이걸 研究를 해 달라, 對象이 이것이 빠졌다. 그런 것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議會에서 서울시 公務員들 質疑를 받을 때, 議員님들이 質問을 하실 때 局長들이 이것은 市政開發研究院에 研究를 依頼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責任을 회피하는 그런 구실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前期 議會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議員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쪽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제가 또 職員들을 전체 모아놓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朝禮를 하는데 전체직원들한테 여러분들 研究할 때 研究는 객관적인 내용이 타당한 것이 생명이니까 절대로 외부에 압력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더라도 조금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압력은 내가 다 막아줄테니까 여러분 良心껏, 所信껏 해라,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거의 없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盧載東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盧載東委員; 盧載東 委員입니다. 定員內에 招聘研究員이 있고 委囑研究員이 있고 研究補助要員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報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報酬問題는 조금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委囑職의 경우에 責任研究員과 委囑責任研究員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報酬가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豫算에는 좀 現實化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지요.

○總務課長 崔東根; 總務課長입니다.

지금 委囑職에 대한 給與도 보수도 역시 우리 正規職員과 똑같은 委員級, 首席級. 賣任研究員級, 研究員級 이렇게 4種類로 나누고 研究員級이 碩士級입니다. 碩士 外에 연구를 補助할 學士가 필요하기 때문에 研究補助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正規職員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만 현재 委員級에 教授級, 직책으로 말하면 部長級입니다. 部長級の 報酬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만근했을 경우에 235萬원 정도로, 基本級이 165萬원이고 賞與金이 200%해서 27萬 5,000원. 年月次手當 만근했을 때 13萬 2,000원을 받을 수 있고. 時間外手當이 15時間있습시다만 15時間時間外 超過 勤務를 했을 때 24萬 7,000원, 그리고 補助金으로 저희가 5萬원 해서 總 235萬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委員級の 경우가 이렇고 責任級 博士인 경우에 총액이 143萬 2,000원이 됩니다. 基本給은 99萬원이고 賞與金이 16萬 5,000원 그리고 年月次手當 7萬 9,000원, 超過勤務手當이 14萬 8,000원 그리고 補助金 5萬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역시 賞與金과 年月次手當, 時間外 手當은 정해진 시간을 만근을 했을때 추정액이 최대한이 그렇습니다. 이외 職級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급별로.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대체로 正規職의 한 73%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현실화하자는 意見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내년도 豫算編成基準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現實化했습니다, 그래서 한 팔십몇 %까지 올리는 것으로.

○盧載東 委員; 카이스트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카이스트하고 비교해서는, 카이스트하고는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봤고요, 內務部 地方行政研究院하고 KDI하고 交通開發研究院, 韓國建設 이것은 技術研究院인데 거기하고 비교해 봤는데, 研究委員級을 보게 되면 韓國建設이 303萬 8,000원, 交通開發이 281萬 7,000원, KDI가 306萬7,000원, 地方行政研究院이 341萬2,000원, 市政開發研究院이 337만 8,000원 대개 그 정도 수준이고, 다음에 제일 밑의 研究員級을 보면 한국건설이 125萬원, 교통개발이 105萬원, KDI가 119萬원, 지방행정연구원이 182萬원, 市政開發研究院은 148萬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研究機關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委囑職으로 해서.

○盧載東 委員; 研究課題하고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研究委員님들이 각 지역에 가면 마을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交通이 후미지고 이런쪽에서 시장이나 아니면 地下鐵까지 연계輸送 하기 위해서 運輸會社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버스를 준비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交通局長을 만났더니 12月 연말에 연계수송 개편안하고 노선버스를 一括調整하기 위해서 마을

버스 認許可를 일체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研究 課題에 보면 시내버스노선 합리적 改編方案과 大衆交通手段 환승체계구축에 관한 연구가 運輸1課 프로젝트로 해서 검토가 다 된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서울市廳에 넘어가 있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습니다.

○盧載東 委員; 그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우트라 인만 설정을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구체적인 것은 交通研究部長이 설명을 하시도록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원래 저희들이 95年度에 大衆交通體系를 어떻게 整備하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研究用役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거의 끝내가는 단계였는데 서울市에서 市長님이 바뀌시면서 금년에 補助金을 서비스업체에다 지급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대중교통체계와 버스노선 조정하는 것을 다시 補助金 문제를 같이 묶어서 세 과제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調整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交通部長이 하겠습시다.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都市交通研究部長입니다.

지금 盧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문제, 우선 마을버스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研究 課題가 일단 2期 地下鐵이 개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버스노선이 전면적으로 再調整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했었습니다. 해서 일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改編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마을버스도 같이 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한 원칙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 이외에 지금 서울市에서 추진하는 路線體系 중의 하나가 地域循環버스

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각 區廳을 돌아다니는 단기노선버스인데 주로 피더시스템이지요, 地下鐵驛하고 주거지를 연결해서 왔다갔다 하는 피더시스템으로서 지역순환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순환버스의 기능이 지금 마을버스의 기능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交通局 政策의 방향은 마을버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個別事業者들이 나름대로 전부 해 왔기 때문에 그 路線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政策을 좀더 체계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마을버스체계를 地域循環버스體系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基本方向下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大衆交通 換乘센터도 마찬가지로 맞추어서 저희 研究院에서 올해 끝나는 課題中の 하나가 大衆交通 換乘센터 建立에 관한 基本課題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뭐냐하면 마찬가지로 地域循環버스體系가 되고 地下鐵 2期가 開通되면서 환승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 大衆交通體系를 굳혀간다는 측면에서는 換乘問題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基本計劃을 저희들이 올 12月까지 끝내서 서울시에, 거의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福井역이라든지 華開寺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것도 基本計劃 次元에서 서울시에서 檢討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盧載東 委員; 그럼 지역순환버스는 市, 區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個別事業者가 運營을 합니까?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지역순환버스의 모든 路線이나 모든 權限은 區에서 결정이 되고나서 自治的으로 운영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盧載東 委員; 저희들 일반 市民들이 알기로는 좌석버스나

일반버스 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서비스향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거는데 실제로 料금이 올라갈 때마다 市民들이 느끼기에는 서비스가 向上되는 것은 거의 느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시내버스 運送事業者들이 대개 알짜부자들로 알고 있는데 이 料金引上 問題나 改編案이 나올 때마다 버스運送事業者에 대한 稅制支援이나 財政支援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버스 주차장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研究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市長님께서 버스업체가 赤字를 보고 버스운영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支援을 해서 버스가 活性化될 수 있게, 그래서 大衆交通체제로 가져가자고 지시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受託課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계속 研究를 하면서 檢討되는 부분은 일단 버스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도대체 버스업자들이 현재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느냐는 부분이 일단 밝혀져야 된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客觀的이고 普遍的으로, 科學的으로, 體系的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支援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特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버스업체의 經營實績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만약 그것이 안 드러난다고 그러면 직접적인 支援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버스料金 징수체계를 바꾸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을 그냥 내면서 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그것이 市長님 新聞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버스料金 징수체계를 자동요금徵收體系로 바꾸자라든지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바꾸게 되면 버스經營實績이 그대로 電算化되면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收入이 있고 어느 정도 輸送實績이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客觀的인 資料로 提示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支援體系가 갖추어지기 전에 먼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되고 난 다음에 支援해야 되고, 직접적인 支援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 간접적인 지원은 지금 현재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大氣汚染問題에서 버스 디젤자동차에서 발생하는 大氣汚染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것을 推進中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엔 推進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매연후처리장치 裝着을 勸獎하는 事業이 있습니다. 그 事業이 그런데 그 후처리장치가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다만 후처리장치 부착을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도 일부분 부착하는데 들어가는 經費의 일부를 支援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에 대한 지원은 아마 현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 研究過程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盧載東 委員; 지금 대개 시내버스 노선들을 보면 구절양장으로 길잡아요? 예를 들면 城北區의 石串洞에서 永登浦區 大林洞까지 해서 도심지, 地下鐵工事場 구절구절 전부 돌아서

대개 시내버스 노선들이 시내 中心을 貫通하기 때문에 都心 交通滯症에 막대한 支障을 초래하고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黃金路線 이려면 決死抗爭을 하고 그 노선을 고수하려고 하는 業者들의 치열한 로비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와관련 해서 市政開發研究院에서 研究하신 프로젝트, 예를 들면 江北 에서는 서울역이나 市廳을 중심으로 해서 회차를 해서 다시 차고지로 돌아간다는지 이런 쪽으로 좀 建議를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또 다른 基本研究課題 중에 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改編方案에 관한 研究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체계가 굉장히 어떤 부분 不合理하고 그 不合理한 원인도 어떻게 보면 個別 事業者들이 收益性을 따져서 路線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판단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점이 버스 노선을 改編하는데 커다란 障礙要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障礙要因이 현실적인 制約條件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改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改編方案을 제시하고 실제 改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노선을 改編해야 된다고 했을 때 중요한것이 어떤 기준하에서 改編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왜냐하면 그것도 客觀的인 基準이 있어야 說得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提示 되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그 노선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間接機能의 역할이냐 아니면 피더 시스템이냐, 循環機能이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다음에 地下鐵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地下鐵과 並行해서 계속 따라가는 路線이냐, 아니면 地下鐵을 지원

하는 노선이냐라는 문제라든지, 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便宜性이 현재 어느 정도 고려되고 있느냐라는 문제라든지, 도로운행 조건이 어떠냐라든지, 버스노선의 길이가 얼마냐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改編基準下에서 저희들이 改編하고 있는데 改編方法은 이렇습니다 저희 研究院에서 案을 提示하면 서울시에다 보냅니다. 서울시에다 보내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버스事業組合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버스事業組合의 意見을 수렴해서 意見이 오면 저희 研究院에서 다시 檢討를 합니다. 다시 檢討를 해서 이렇게 내용을 피드백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 버스路線改編委員會가 있습니다. 그 委員會에서 最終적으로 결정을 해서 執行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말에 50여개의 버스노선이 改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거기에 대해서 追加로 質問하겠습니다.

지난번 버스노선회사 社長님들과 懇談會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黑字가 안 난대요. 그런데 실체는 黑字가 난답니다. 왜 나느냐 하면, 뭐가 計算이 안 되느냐 하면 출발지에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 計算을 하면 赤字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換乘하는, 내렸다 탔다 하는 사람들의 數를 어떻게 計算하느냐, 그 수에 대해서 黑字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市政開發研究院이나 시에다 낼 때는 그 중간에 타고내리는 것을 計算하지 않고 전부 자료를 내거든요, 실질적으로.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근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業者들이 가지고 있는 資

료를 밝히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네, 그렇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요구만 하고 있다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치밀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되지, 業者들 얘기하는 대로만 다 들었다가는 문제가 있고요. 또 業者들이 赤字가 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말씀이 공영버스를 해서 서울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인수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버스를 公營化하는 부분의 문제는 지금 찬반兩論이 극하게 對立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外國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올 기회도 있었고, 결국 意見 수렴 중에 있습니다. 意見 수렴 중에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버스체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답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正答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다양한 政策들이 구상되어야 되고 다양한 交通手段들이 市民들한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政策으로 연결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 나라의 버스체계 자체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交通手段 自體가요. 單純化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다양화시켜서 고급버스도 좀더 도입하고,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韃도를 따라 가면서 버스가 필요한 모드로 전기도 켜다가 내연기관도 켜다가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高品質의 버스수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버스수단 자체가 多樣化되면 多樣化될수록 서비스 수준은 커집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制度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次元에서 마찬가지로입니다. 예를 들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프렌차이즈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競爭을 해서 비딩을 해서 따내는 노선체계를 가져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상당히 버스운영 效率性이 굉장히 밝습니다.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市民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요.

그런데 公營化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公營化했을 때 效率性의 문제, 이 문제가 反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反對要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 公營化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중요한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公營化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公營化를 하지 않기 때문에, 個人事業者에게 맡겨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부 公營化하는 것도 우리가 가야 될, 검토해야 될 방향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은 홍콩 같은 케이스로 좀 대규모의 民間事業者한테 運營을 委託하는 方法도 같이 고려되면서 다양한 運營形態가 고려되면서 그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公營化하면서도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 勞組問題가 있기 때문에 委託管理하는 정도의 公營化 그런 얘기지요?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車庫地問題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인 제약 중의 하나입니다.

○盧載東 委員; 그런데 차고지를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財政支援을 해 준다고 하면 아직 깊이 있게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拒否感이 오는 것이 처녀 시집 안 간다는 얘기하고, 장사 밀지고 판다는 것하고 거짓말이거든요. 밀지는데 勞組도 있고 한데 운전기사들 고용하면서 노선 버스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千百萬 市民들한테 자기네들이 공덕비 세우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慈善次元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양한 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체는 돈이 남는 장사거든요.

그런데 料金を 올릴 때나 어떤 때를 보면 市民들에 대한 서비스는 인색하다구요. 그래서 財政支援 問題를 얘기할 때도 어떤 쪽에다 支援할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어야 된다고요. 좌석버스를 타면 비교적 냉방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3, 4月달도 오늘 같이 날씨가 따뜻할 때도 좌석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으면 얼굴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런데 차광커튼 하나 안하고 커튼고리 다되어 있지만 커튼 하나 하는 業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 경험인데 저는 葛峴洞에서 서울大學 가는 72-1버스를 타면서 승강대에 딱 올라서면 교통불편신고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市長한테 가는 것이. 그것을 빼서 몇 번 같이 同乘하고 있는 승객들한테 얘기해서 차광커튼을 하거나 코팅을 해 달라고 씩시다하고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 是正 안 돼요. 業者들이 是正 안해요. 그래서 財政支援하는 문제는 그런 角度에서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補助金 政策은 모든 객관적인 자료들이 公開되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고, 그것하고 연결해 말씀드릴 것이 지금 機會 있을 때마다 저는 公務

員, 局長들이나 課長들 만나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判斷할 때 政策的인 漏水現象, 다음에 投資의 漏水現象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政策을 執行할 수 있는 기초가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投資를 해도 投資效率을 거둘 수 없다, 거두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次元에서 일단 객관적인 資料가 公開되고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직접보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한 가지만 結論的으로 補完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희들 地下鐵路線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地下鐵 運行路線이 많아지면 그것을 주된 輸送手段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직접 연결이 안 된다거나 이런 데에만 버스로 補完體系로 連結시키는 것, 그리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중간에서 회차하는 방법으로. 작은 버스를 가지고 빨리 回數를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되 지금 현재 있는 業者를 다 배제하고 아주 理想的으로 補完體系를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업체는 밀진다, 안 밀진다 그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이, 아예 公營車庫地만 만들어 놓으면 1年이고 6個月이고 業者들이 돌려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돌려가면서 하게 되면 누구 불평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不利益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公營化 말씀하셨습니다만 과리 같은 데는 地下鐵과 버스가 다 하나의 과리公社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하철 표를 가지면 버스도 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統合的인 交通體系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補完

體系 中心으로 하되 補助金을 가지고만 支給하는 것이 서울 市 政策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밀진다 어쩐다 하는 것을 빼버리고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業者들을 돌려가면서, 일정한 기간을 돌려가면서 路線을 바꾸어서 하는 方法도 있지 않은가,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黃仁明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黃仁明 委員; 黃仁明 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長期 研究員 研修計劃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4年度 95年度 다 한명씩 研究員 또 責任研究員들이 1年 정도 研修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짜며, 한 명씩 보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연수를 가게 되면 우리 研究院에서 給與問題하고 또 다른 支援問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몇 가지 事項을 알고 싶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지금 현재 研修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의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研究員인데 外國 가서 공부를 하고 博士學位를 받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까지는 인정을 하되 休職으로 인정을 합니다. 休職으로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TO가 부족한데 그 TO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2年 비는 동안에 저희들이 研究員을 따로 써서 연구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委囑職, 예를 들어서 正規職 같은 면서도 委囑職인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써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日本의 大學하고 저희들이 協約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토大學인데 일본의 교토大學하고 研究交流

協定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토大學에서 무료로 1年 동안은 저희 研究員을 土木이나 交通이나 環境, 衛生分野에 대해서는 1年 동안 無料로 研修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저희들이 뽑아서 그래서 研究에 지장이 없는 範圍內에서 한 사람을 보내서 研修를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번에 1年間 적이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그럼 그런 경우에는 休職處理는 아니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이런 경우에는 本人이 갈 때는 休職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休職으로 하고 있습니다.

○黃仁明 委員; 아, 休職입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黃仁明 委員; 그럼 研究員이 또 1年 동경대학 가서 공부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어떻게.....

○黃仁明 委員; 자료를 보니까 研究員이 1年 동안 동경대학에서 博士課程을 공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아, 그것은 休職해서 本人이 自己意思로 공부하겠다고.....

○黃仁明 委員; 네, 알겠습니다.

○金相男 委員; 제가 하나 좀, 제가 자꾸 묻는데요. 基本課題하고 受託課題 자꾸 여쭙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궁금해서 좀 더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院長님 말씀하시기를 38個 基本課題가 있어서 55億원은 서울市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55억이라는 것은 38個 課題에 대한 研究費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研究院 運營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豫算上 보니까 일단 세출이 55

억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받아온 것이 아닙니까?

受託豫算 代價로 받아온 것이 아니고.....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여기 經常費로 포함하지만 전부 計算을 합니다. 지금 豫算되어 있던 서울시에서 저희들 내년도의 경우도 전부 算出을 합니다. 算出해서 그래서 여기에 물론 經常費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만 그 외에 연구프로젝트에 따라서 그것도 포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러면 研究課題 여기에서 만약에 38個라고 하면 또 내년에는 그것을 미리미리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研究課題를 먼저 선정해 놓는 것이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研究課題는그 동안 서울시에서 各 局別로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研究를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案을 내라고 그리고 우리 研究院에서도 내고 그래서 서울시의 局長들과 저희 部, 室長들이 같이 앉아서 討論을 하고 그것을 몇 번 한 다음에 검토를 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개 豫算規模가 얼마다 하는 것이.....

○金相男 委員; 거기에 따른 변동비는 일단 연구비가 되겠네요? 研究費가 되는 것이고 일반경비라든지 인건비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補助經費가 되고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補助經費가 되겠네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습니다.

○金相男 委員; 그러면 受託課題라는 것은 研究課題를 뺀 수시로 각 부처에서 필요할 때 受託課題가 들어오는데 受託課題에 대한 受託價格, 價格選定 基準은 어떻게 됩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것은.....

○金相男 委員; 거의가 隨意契約이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隨意契約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議會에서 서울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원칙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는 가능한 한 우선 市政開發研究院에서 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했었는데 그동안 저희 研究員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연구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제는 育成條例 때문에 저희들한테 온다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 그런 뜻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金相男 委員; 金額策定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金額策定은 여기에 보면 제일 큰 것은 4億 8,700萬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契約額 策定은 어떻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것은 서울시에서 豫算編成單價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가 안됩니다.

○企劃調整室長 韓泳奏;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學術用役單價라는 것이 있고 技術用役單價라는 것이 다 품의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 研究院이 할 수 있는 것은 學術用役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물론 서울시에서 用役을 發注할 때는 用役審査委員會가 있고 이렇게 거쳐서.....

○委員長 文錫珍; 都市經營研究部에서 施行한 投資機關經營評價요, 이것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投資機關經營評價는 93年度부터 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93, 94, 95, 3個年을 죽 하셨네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3個年 계속 하시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몇 件이 처리가 되었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投資機關에 대한 經營評價를 할 때는 거기에 計量部分에 대한 評價가 있고, 예를 들어서 評價內容이 숫자로 나오는 그런 것이 있고 計量化할 수 없는 서비스의 정도라든지 등등 非計量 部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멤버들이 한 12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研究院에서 참여하는 것은 3人 내지 4人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거기에 計量班이 지금까지 보면 5名이 전부 三逸會計法人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行政監査하는 동안에 指摘된 것 중에서 삼일회계법인하고는 직접 서울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市政開發研究院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都市經營研究部長 崔炳大; 都市經營研究部長입니다.

經營評價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計量分野와 非計量分野로 나눕니다. 計量分野는 會計法人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삼일회계법인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전부터 서울시 投資機關에 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오에 따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三逸會計法人이.....

그 다음에 投資經營評價가 원래 법적으로 매년 4月 1日부터 6月 30日 3個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投資經營 評價를 하기 전에 決算年度 公企業評價를 課題로 내줍니다. 그것을 하면서 投資經營評價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 投資經營評價를 매년 할 때마다 3個月 단기적으로 팀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3個月 그때만 고민을 하고 그 뒤에는 고민을 안해버립니다. 흔히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流浪劇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할 때만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가 經營評價에 대한 待續的인 발전, 累積的인 효과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해서 저희 都市經營研究部가 참여를 했고 따라서 計量職과 非計量職種 부분에 일일이 檢討를 해서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하나를 검토해서 내년부터 部分的으로 指標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비록 3個月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누적적인 효과를 계속 고민하면서 내년도에 어떤 문제점과 어떤 規則들을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研究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 研究部에서 전 부분이 다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專門分野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研究職이 지금까지 한 3회 내지 4회정도 참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일을 저희 研究院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研究者체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일단 計量班에 대해서 年間 지금 여기 契約額이 일단 받은 受託金額은 6,740萬원인데 얼마에 計量班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都市經營研究部長 崔炳大; 정확한 金額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총 외주금액이 5,000萬원 정도이고 그 중에서 計量班에 2,000萬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2,000萬원? 契約書를 한 번 잘 찾아 보시고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經營研究部長 崔炳大;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음에 質問을 드리는 要旨는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市 投資機關에 대한 經營評價는 內務部나 기타 國家 中央政府에서 하고 있는 評價의 거의 대부분에 三逸會計法人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한 會計法人하고 持續約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노하우의 蓄積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타 會計法人은 배제가 되고 있고, 또한 이 投資機關經營評價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投資기관에 대한 賞與金,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經營評價가 客觀性을 지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군데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市議會가 4代 때 오면서 많은 提起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競爭을 할 수 있다면 또 公開競爭을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公開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 기본구조입니다. 지난번 市金庫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서 受託課題 갖고 있는 것을 다시 외부에 用役을 준다고 할 때 만약에 외부에 用役을 줄 수 있을 때 똑같이 경쟁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경쟁의 기회를 똑같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삼일회계법인만이 國家나 地方政府가 하고 있는 모든 經營評價 내지는 용역에만 거의 獨占的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 政府가 해왔던 행태나 地自制에서 해왔던 행태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 또 다시 계속적으로 한 會計法人만 지정해서 하실 것인지, 公開的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委員長님, 참 좋은 말씀 指摘해 주셨습니다. 다음 번부터 競爭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向後에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제가 미처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指摘해 주셨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鎮珍; 白南善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白南善 委員; 白南善 委員입니다.

92年度末에 開院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이 지나면 한 15億원 정도를 앞으로 財政自立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서울시에서는 한 3億원정도를 지원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自立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年間 5억원 이상 이렇게 비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人員이 76名인데도 불구하고 73名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 運營하는 데도 애로가 있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신다고하는데 어떠한 좋은 비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지금 문제는 사실 今年末까지 원래는 11億 5,000정도가 나오게 될텐데 거기에 3億원이 들어오고 작년에 市議會에서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원래 없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豫算을 執行하고 殘額이 있으면 이 殘額이 전부 基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금 白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15億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基金問題는 역시 研究院이 제대로 되려면 基金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돈 달라고 하

는 데는 상당히 많을테고 委員님들도 참 고충스러우실텐데 저희들까지 거기에 끼어서 돈 좀 주십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해주시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만 간절할 뿐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白南善 委員; 그건데 지금 여기 組織改編을 보면 理事를 구성하고또 理事長님이 계시고 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거기에서 支援은 없습니다.

○白南善 委員;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內容 中에서 職員들 문제는 TO를 대폭적으로 늘리자 하는 얘기도 일부 나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너무 慎重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한꺼번에 職員을 막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봐서 優秀한 사람들을 뽑아서 늘려나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來年度에 다른 데의 경우는 正規職員이 한 90% 내지 95%되고 正規職員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臨時職員은 한 5%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臨時職員이 研究職에만 한 70%가 넘다보니까 사실 일하는 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正規職員들이 자기 일을 하기보다는 들어갔다 나가는 사람 뒤치다꺼리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來年度에는 5명 정도만 늘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데, 아주 정말 없어서는 당장 안될 데에만 우선 보충을 하고,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충원시켜서 조금씩 指針을 받아나가는, 그래서 研究院중에서는 서울市政開發研究

院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研究院이다,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한꺼번에 뽑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어렵지만 한꺼번에 財政規模도 많이 늘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中長期發展計劃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相男 委員님.

○金相男 委員; 아까 院長님 말씀하시기를 日本의 교토大學하고 협조가 되어서 委託教育을 無料로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럽, 미국쪽이나 日本이나 이런 都市問題를 專門으로 하는 研究機關하고 자매결연 비슷하게 또는 共同開催 그런 계획이나 무슨, 여기에 보면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만약 우리가 外國의, 先進國의 都市問題를 專門적으로 연구하는 기관하고 같이 協助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쉽게 노하우나 축적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委員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開院 3周年 세미나도 하고 지난번에 국제 세미나 하면서 委員님들 모시고 대대적인 국제세미나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外國에서 온 아주 석학들인데 그 碩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이런 研究院은 자기네 나라에도 없다. 없는데 서울시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모델케이스가 되어야 될 판이지, 市 자체 研究機關이 없습니다. 日本 東京만 하더라도 東京都에 調査 무슨 研究所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하고 좀 관계를 맺어서 자료도 계속해서 받아서 東京都에 대한 모든 움직이는 것을 파악해서 政策代案으로 제시하려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들을 보러 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불란서의 과리市가 아니고 과리의 首都圈에 研究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姉妹結緣 좀 맺자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만 잘 된다면 아마 都市計劃 問題에 있어서는 과리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相男 委員; 제가 洪鍾敏 都市局長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분 불란서 유학도 했잖아요? 都市計劃課長 때, 불란서가 상당히 都市計劃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都市計劃은 저희들 거기 가서, 저는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소르본느大學에서 教授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저희하고 그냥 수평적으로 比較한다는 것은 저희들을 너무 처절하게 만들고 차원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그 쪽을 향해서 자꾸 배워 나간다면, 그런 자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朴南植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朴南植 委員; 院長님 그리고 研究員님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基本研究課題가 38件에서 14件은 審議完了 되었다고 하는데 審議完了된 것은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어서 施策過程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마쳐서 아까 말씀드린 審議委員들, 여섯사람들 다 모여서, 교수들

몇 사람 다해서 서울시에서도 한 사람이 참여하고 전부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教授들이 다 評價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補完할 것이 있다면 이런 점만 보완해라. 그럼 보완하면서 바로 冊子를 인쇄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朴南植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제가 瑞草區의 未施設 公園, 아까도 院長님 室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호주 같은 데는 公園이 잘 되어 있고 우리 瑞草區에도 가장 유일하게 정보사 뒤에는 안 들어가봤습니다만, 산이 야산이 있고 바로 藝術의 殿堂이 우면산이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아침에 산책하기도 좋고 시민들, 區民들이 公園으로서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評價를 합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조깅이나 등산을 하고 있는데 藝術의 殿堂 이번에 완전히 잘 되어 있지요, 시설이. 대성사 들어가는 입구의 좌측에 藝術綜合高等學校를 짓겠다고 한때 플래카드를 붙여놨었어요, 작년에. 그러다가 신문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藝術高等學校 짓는 과정에서 市政開發研究院에서 그것이 研究課題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그래서 公園이 예를 들어 市有地인지 國有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測量도 해서 상당한 범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瑞草區民들이 절대 반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데모도 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경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學校를 짓는다고 했다가도 또 그 지역의 많은 압력이나 뭐 하다보면 다시 또 착수하는 법도 있었고 불규칙적인 施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데에다 學校

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都市公園을 위해서는 지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 말씀드립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저희들이 研究課題로 이런 것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해봤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었느냐, 研究課題로 잡을 것도 없이 하루만에 結論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學校를 여기에다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파리의 루블박물관 안에다 美術高等學校를 짓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文化體育部長官한테 제가 누가 그런 식으로 發想을 했느냐고 제가 한번 물었더니…….

○朴南植 委員; 들으셨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가 발상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글썄, 도저히 그 藝術學校를 어디에다 지을 데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 구상을 했다고 그런다는 막연한 대답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 나오지도 못하게 거기다가 세상에 무슨 學校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다시는 얘기 나오거든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用役 같은 것을 맡은 일은 없고 그것은 用役對象도 되지 않습니다.

○朴南植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世煜; 네, 李亮漢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자료에 보면 基本研究 38個 課題에 特別研究 1個 課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55億인가 작년도에 42億, 55億 그 돈을 出捐金으로써 연구하는 것입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李亮漢 委員; 제 생각같아서는 他自制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각종 法律整備라든지 財政的 問題, 地自體와 서울 政府와의 관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課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地自制가 형성됨으로써 우리가 6·27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서울市的 地自制로서의 방향, 그러니까 市長님이 말씀하신 特別法制定 같은 그런 방향적인 입장에서 研究가 안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년에는 어떤 課題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새 江南도 그렇고 江北도 그렇고 아파트 5층짜리 再建業 問題가 서울市住宅局에 얘기하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答辯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12층에 容積率을 270%정도 서울市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瑞草區라든지 江南區, 松坡區 여러 個가 한 20個 集團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집단마다 각각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容積率 약 400% 정도에 30층을 지어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政開發研究院에서는 住宅局에서 받아서 연구된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음으로써 얘기가 8萬名인가, 9萬名인가 人口增加가 나온다는 그런 소리를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答辯 좀 해 주십시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아까 地自制 실시 이후에 말씀하신 것, 우리 서울市 自治, 특히 議會의 位相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地自制에 대한 방향

의 研究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研究課題에다 市長님과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特例法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시가 自治를 하는데 自治다운 自治를 하려면 法습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地方自治法 制定된 이후에 法습이 改正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무슨 自治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中央政府에서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趙市長님과 말씀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지금 바꾸려면 제가 짐작컨대 한 1,000 個 이상의 法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서 내년도 研究課題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내년도 研究課題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을 나서서 주장하고 하는 것도 어차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院長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教授의 입장에서 제가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장님도 그러시고 서울시議會가 제대로 議會機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세미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때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法습에 얽혀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무슨 自治입니까, 그것이?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委員님들께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地方自治法 第9條에 나와 있는 최소한도 57個 예시된 事務, 그것만이라도 自治團體에서 하되 議會가 제대로 機能決定을 하려면 法습을 1,000 個 이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大型課題로 넣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大學校에 地方自治

를 전공하는 유명한 학자들을 전부 우리 研究院에서 모셔다가, 제가 이미 벌써 付託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法을 전부 뒤져서, 지금 法制處에서 안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93年度 6月 17日 그 당시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에서 地方自治法 改正方向을 말씀할 때 제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地方自治를 하라고 해서 法을 만드셨으면 議員님들이 地方自治를 할수 있는 法改正도 하셔야지 그것만 해놓고 부수되는 法改正을 하나도 안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많은, 律士들이신데 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案을 만들어서 갖다 드릴 테니까 방망이만 두들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많은 法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議會에도 報告를 드리고 서울市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주된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가서 제가 설명도 하고, 內務部에서 물론 싫어하겠지만 國會에 가서 설명하기에는 참 좋더라구요.

제가 해보니까 이분들도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즉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다고 다 納得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法을 바꾸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하여튼 내년도 研究課題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무려 1,000個 이상이 넘는 法을 고쳐야 되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서울市特例法은 사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필요없지요」 하는 委員 있음)

제가 이따가 委員님들 가시기 전에 論文을 제가 政治學會에서 발표한 論文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首都의 自治權을 누리고 있는 法的地位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제일 바닥입니다, 서울市가.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올려놓으면 特例法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特例法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市가 올라가고 다음에 다른 데도 따라오도록 이런 점진전략, 올라웃 스트레티지가 아니고, 전면전략으로 한꺼번에 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中央政府로 하여금 다른 데는 우선 놔뒀다가 서울市부터 우선 고치자. 그래서 서울市부터 正常化시키는 방법으로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漸進戰略으로 나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特例法으로 해야 되는데 이 特例法에 대해서는 제가 84年度에 서울市待別法을 만들 때 제가 혼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하고 지금 여건이 많이 달라져서 그것을 그대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市長님한테 報告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쇄를 研究院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밀을 유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알고 반대하기 때문에, 기밀이 하도 새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두꺼운 報告書를 혼자 앉아서 썼습니다, 서울市特例法에 대한 案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체로 委員님들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대개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다 붙여서 特例法案을 내고 왜 이런 法案이 필요하냐는 하는 것을 쉽게 풀어서 하고 說明資料로서 제가 과거에 研究했던 것을 붙여서 낼까, 그렇게 이중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再建築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래 5層의 住公아

파트에서 지은 것을 전부 부수고 30層으로 건축하겠다. 지금 한강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30層으로 짓겠다는 建築許可를 거의 다 내고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들어준다면 한강은 완전히 샛강이 되고 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市民들의 요구가 어떻든간에, 그리고 한강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리건널 때하고 헬리콥터 타지 않으면 한강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분들은 막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江南地域은 좀 나운데 蠶室地域의 경우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롯데월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아침출근 시간에 30分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2萬 1,500世帶인데 그것을 만약에 다 짓게 되면 5萬世帶가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庶民들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는 率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低賃勞動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職場이 이 근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적은 편인데 그렇게 30層으로 짓게 되면 한 10坪 내지 13坪이 정도의 낡은 아파트가 돈 한푼 안 들이고 35坪 내지 45坪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서서 한 2億원 내지 3億원 돈을 벌겠다는 생각인데 서울시 교통문제로 저것이 망쳐지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파트 팔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35坪 내지 45坪이 되면 자동차를 안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數가 2倍 이상 늘어난데다가 지금 자동차가 적는데 더 많이 갖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地域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면에서도 그렇고, 또 學校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都市 美觀上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私席에서 委員님들께 말씀 올렸습시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3層 짓는 것도 부수고 2層으로 짓자,

다음번에 再開發1層으로 낮추자, 이렇게 해서 숲속의 도시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30層으로 막 지어서 이제는 땅에서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시민들의 利己主義 때문에 저는 사실 비관스러울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地域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地域은 조금 高層化 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 그런 융통성은 필요합니다만, 제 생각은 지금 서울市에서 생각하고 있는 12層에다 容積率 270% 그 이상 넘어가면 완전히 도시가 망쳐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市政綜合電算網構築方案을 基本研究課題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오전에 電子計算所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電子計算所가 우리 서울의 電算을 擔當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희들 期待에 못미칩니다. 豫算規模도 70 億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여기같은 경우는 한 55 億원을 서울市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물론 機能은 다른 곳이지만 이쪽은 주로 人的資源이고 그쪽은 電算인데 우리가 電算部門만큼은 우리가 世界化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情報化 이런 쪽밖에 없는데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여러 가지로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政策的인 결정을 못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電子計算所에서. 그럼 여기에서 나온 市政綜合電算網構築方案이 이미 95年 8月로 해서 종결이 된 것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앞으로 電子計算所의 位相問題라든지 서울市電算問題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다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예, 그것은 擔當室長이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미리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綜合電算網構築, 앞으로 서울시의 電算에 관한 문제, 저로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公務員들 중에서 電算問題를 잘 알고 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研究院에 우리도 電算 쪽에 사람이 없습니다만, 하도 서울시에서 지금 전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람이 없어못하겠다, 아는 사람도 없고 뭘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研究員 한 사람을 파견할 능력, 우리도 人力이 없고 해서 1주일에 이틀정도 가서 도와줘라, 해서 저희 研究院에서 研究員이 한 사람 가서 1주일에 이틀 정도 서울시 電算擔當官室에 가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지요.

○資料電算室長 張英姬; 研究責任을 맡고 있는 電算室長 張英姬입니다.

綜合電算網 방안의 결과로서 저희가 도출한 것이 우선은 상당히 實務部署에서 활용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55個課와 電子計算所 그리고 각 事業所들에 대한 需要조사를 했습니다. 각 課의 需要調査를 한 것과 앞으로의 技術開發 展望 등을 합해서 앞으로는 이 電子計算所와 같은 中央集中式 電子計算은 지금은 기술추세가 분산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분산되어야 되겠다 해서 각 局·課別로 專門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각 局·課別로 나누고 다음에 電子計算所의 역할은 또 다르게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5個의 專門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都市計劃專門시스템, 交通分野專門시스템, 行政總括시스템, 環境시스템 그리고 市民情報시스템 이렇게 해서 대충 5

個 專門分野로 나누었고, 그 專門分野別로 本廳과 區廳과 事業所, 洞事務所가 한꺼번에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電子計算所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職制가 企劃管理室 傘下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企劃管理室 傘下에서 政策에 대한 결정은 電算統計擔當官이 맡고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기술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電子計算所입니다. 그런데 현재 電子計算所에서는 電子計算所의 主要役割이 全國적으로 行政電算網事業에 의해서 市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住民業務라든지, 不動產, 自動車 이런 전국적인 업무 중에서 서울시關聯業務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行政電算網 事業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住民, 自動車, 不動產 이런 부분들이 전부 自治區로 移管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電子計算所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더 약해지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크게 두 가지로 電子計算所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各 部署에서 앞으로 情報化社會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상, 조서, 카드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것들에 대해서 公開가 가능한 것은 公開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 各 部署들이 상당히 중복적인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各 部署別로 專門시스템이 보충되어서 專門 데이터베이스 體系가 갖추어진다면 各 部署間의 교류보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電子計算所 役割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이 한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센터로서의 기능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電子計算所에서 집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

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데이터 인덱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전부 통용된다면 앞으로 情報化 社會를 당기는데, 그리고 各 部署別로 데이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요새 GIS事業이 앞으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國家 GIS事業에 의해서 98년까지 기본도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基本圖라는 것이 주로 서울시의 경우 1:1000항측도와 地籍圖를 基本圖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都市計劃, 交通, 環境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데이터와 같은 것은 항상 지상의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主務部署의 역할을 할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電子計算所가 앞으로 GIS分野의 데이터 센터로서 해야 되겠다는데, 저희가 지자체의 電子計算所 역할을 그렇게 데이터센터와 또한 저희 GIS分野에서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유통센터입니다. 데이터의 維持管理와 流通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서울시의 總括部署로서 저희들은 電子計算所의 역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報告書에 대해서는 나중에 冊이 출간되는 대로 報告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電子計算所의 역할을 클리어링 하우스로 하겠다는.....

○資料電算室長 張英姬; 데이터센터와 유통센터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알겠습니다. 저희가 會議를 시작해서 2時間이 지나서 停會를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棒)

(16時 11分 監査中止)

(16時 31分 監査繼續)

○委員會 文錫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停會 前에 質疑하지 못하신 委員님께서는 이 시간에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梁敬淑 委員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열심히 研究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市政開發研究院이 하는 基本研究課題나 用役 課題 대부분의 主管部署가 서울시 本廳의 課나 事業所, 區廳 등인데 市政開發研究院이 研究課題를 선정하는 절차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研究依賴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報告書에 의하면. 그런데 이 研究結果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지 答辯해 주시고, 왜 서울시의 用役課題가 작년에 비해서 50%나 줄었다고 判斷하십니까? 50%가 用役이 들어왔습니다, 報告書에 의하면. 이것은 研究院의 연구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반영의 어려움과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研究院의 研究結果가 반영된 것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서울시議會에서 요청한 研究課題는 단 한 件도 없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院長님의 見

解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市政開發研究院에서 研究한 研究結果나 실적에 대해서 왜 市民들을 代辯하고 있는 서울시議員들에게는 研究成果를 報告하고 있지 않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研究課題를 選定하는 과정에서 市民들의 의견은 청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왜 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 어떤 통로를 통하여 취합을 하고 研究課題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研究課題 중에서 서울市民들이 제일 關心이 높은 분야는 本委員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이 낸 税金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資金運用은 그 동안 복마전이라고 일컬어질만큼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 우리 委員會의 行政調査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市政開發研究院의 그 동안 研究實績을 보면 財政과 관련된 것은 94年度에 서울시 地方財政豫測과 配分에 관한 研究 단 한 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理論的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本委員이 연구결과를 심도있게 分析한 結論이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市政開發研究院은 서울시 財政에 관한 研究를 거의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答辯 바랍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94年度, 95年度에 聖水大橋, 阿現洞 가스폭발이나 삼풍백화점 崩壞事故 등등 서울에서는 많은 大型事故가 발생했습니다. 多衆利用建築物의 安全點檢과 災害對策 마련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있고 향후 災害防止를 위한 研究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市政開發研究院은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한 研究는 한 건도 하지 않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판단하기에는 市政開發研究院이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될 우선 문제를 自體的으로 찾아내고 研究課題를 선정하여 서울시나 議會, 市民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研究實績이 自體的인 研究課題의 선정에 의한 것보다는 대부분 서울시의 특정한 部署에 의하여 요구한 부분만 연구하여 실제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준 研究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이 開院한 지 3년이 넘었는데 市政開發研究院의 研究實績에 대한 院長은 어떠한 自體評價를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앞으로 改善되어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전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에 研究管理審議委員會가 있습니다. 研究管理審議委員會는 研究課題를 선정하고 研究結果의 評價와 發表, 出版 등을 담당한다고 報告하고 있습니다. 研究管理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和 委員 14人, 幹事 1人 總 16名으로 구성되어 있고. 會議는 年2回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研究院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年 11月研究課題만 해도 수십건에 이르고 96年度 主要研究課題는 8개 分野에 걸친 35件으로 報告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研究管理審議委員會는 上半期에 한 번 모임을 가졌을 뿐입니다. 보통 研究管理審議委員會의 會議時間은 平均 3, 4時間이라고 報告를 하고 있는데 研究課題當 할애된 時間은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本委員이 판단하기에는 研究管理審議委員會가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判斷되는데 이에 대한 院長의 研究管理審議委員會에 대한 評

價를 요구합니다. 研究管理審議委員會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改善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 2011年 都市基本計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서울市 行政監査 資料에 의하면 서울市는 2011年 都市基本計劃案에 대한 시민公청회와 第3代 市議會의 意見聽取, 서울市 都市計劃委員會의 諮問을거치는 등 절차를 충분히 진행해 왔으나 民選自治時代를 맞이하여 大型開發 爲主보다는 人間本位의 都市計劃으로 政策의 方向 전환이 필요하며, 기존의 계획내용이 대형 프로젝트에 중점을 하드웨어 위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機能補完이 필요하다고 새로운 市長은 評價를 했습니다.

왜 市政開發研究院은 객관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국가상징가로 등등 선심성 大型事業爲主의 都市基本計劃을 提出하게 되었는지 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答辯 바랍니다.

지난 業務報告 때 충분한 研究와 檢討를 해서 내놓았다고 장담을 하였고 自治區의 意見도 충분히 收斂했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趙淳市長의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市政開發研究院이 그 동안 순수한 입장에서 연구를 해 왔다가보다는 서울市 行政家의 요구와 구미에 맞는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本委員은 判斷하고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이러한 例는 많이 있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은 잘된 行政이든 잘못된 行政이든 국민이나 시민보다는 行政機關을 대변하고 돕는 關係 研究機關이라는 강력한 批判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정세욱 院長에 대해서

도 이러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言論에 의하면 都市計劃委員會가 조순 市長 就任 이후에 1년 이상 改編을 하지 못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울시 都市計劃委員會의 諮問을 받아서 현재 再檢討를 하고 있는 중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再檢討 과정에서 各 自治區의 의견이나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으며 서울시政開發研究院의 계획과 다른 점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市政開發研究院의 방향과 自治區計劃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型開發 爲主보다는 人間本位の 都市計劃政策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市長의 지적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선언적인 말 외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으로 進展을 하고 再檢討가 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市가 추진하고 있는 5大 據點開發計劃 事業이 사전조사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작년 議會의 行政監査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市的 5大 據點開發計劃은 首都圈整備計劃 등과 배치되고, 교통량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만을 선정하였고 人口集中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例로 地下開發과 시민광장, 國際機構 등이 들어설 汝矣島地域의 경우流動人口 폭증으로 開發計劃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며 교량과 도로규모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의 서울都市 基本計劃案에 준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市的 5大 據點開發에 대한 評價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2011年 都市計劃案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12월에 專門家 포럼을 개최하고 96年 3월까지 最終計劃案을 확정하여 4月 中에 建設交通部에 承認要請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市長就任 이후에 吉洞과 陽川 둔치에 自然生態公園을 조성하고, 篤섬일대를 據點市街地로 개발하여, 德壽宮과 경향신문에 이르는 길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다는 등의 계획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都市計劃委員會는 마포구 合井洞 일대 주거지역을 일반상가지역으로, 江南區 淸潭洞, 大峙洞 일대 住居地域을 準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하는 上程案을 通過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엇그제만 해도 中區에 한옥지역 등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를 계속적으로 잇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計劃의 發表는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연구하고 있는 서울都市基本計劃과 상반되거나 상이하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研究課題가 서울시에서 수시로 계획을 변경하고 발표함으로써 오는 갈등이나 또는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가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計劃에 대해서 開發院은 어떠한 입장과 반영을 가지고 基本計劃案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都市計劃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산발적이며 선심성 위주의 政策을 수시로 내놓아서 결코 안된다라고 봅니다. 서울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기하는 방향에서 政策을 立案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院長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2011年 都市基本計劃案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을 내년 總選 直前인 3月이라고 報告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月

에 建設交通部의 承認要請을 받는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
月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總選이 있는 달입니
다. 왜 서울시가 92年度 市政開發研究院 報告資料에 의하면
都市 基本計劃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를 즉 검토해 보았더
니 92年度에 서울都市計劃整備構想이라는 研究課題를 연구했
고, 93年度에는 自治區 都市基本計劃 檢討와 綜合化, 서울시
都市基本計劃 妥當性 檢討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4年度 6月
부터 서울시 都市計劃課에서 4億 9,000餘萬원의 用役을 맡아
서 서울시 都市基本計劃案을 補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最終案이 이렇게 92年度부터 研究가 되어
온 課題가 내년 總選時點에서 마무리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答辯會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質疑 내용이 많아서 答辯하실 때 체크하시
면서 答辯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答辯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다 답변드리고 또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擔當研究部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우선 研究課題에 대한 選定節次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
까 설명을 좀 드렸습시다만, 원래 基本研究課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研究課題면 금년도 8月, 9月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研究
院에서도 各 主務部署別로 部·室別로 案을 내고 또 서울시
에서도 각 局別로 案을 마련하게 해서 提示가됩니다. 그것을 가
지고 몇 번의 會議를 거치게 됩니다. 거쳐서 決충을 한 다음
에, 決충하는 과정에는 아까 報告를 드렸습시다만 研究課題에
따라서 품의서에 따른 계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해당

豫算課長도 거기에 參席을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協議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결정이 되면 研究院의 經常費라든지 그런 것과 研究課題에 따른 研究費를 합산해서 서울시가 研究院에 대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選定 節次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基本研究課題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번의 會議을 거치면서 그림으로써 선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受託課題는 서울시가 行政을 하는 과정에 특별히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에게 受託課題로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대체로 受託課題가 각 局에서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受託課題審査委員會가 또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檢討가 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研究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조건 研究를 할 수밖에 없었던상황인데 제가 온 다음에 그것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受託課題審議委員會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서울시에 通報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參考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서울시 研究課題가 편중적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規定上으로는 서울시 研究課題 이외에 다른 일반 企業體까지도 研究受託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研究課題가 너무 많아서 그것만 하는데도 우리 正規職員으로 할 수 없고 해서 委囑職員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機關에서 委託하는 것은 저희들이 研究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

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바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서울시의 것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出捐해 놓고 다른 데 委託을 받아서 研究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여력이 없고 그나마도 委囑職을 써서 겨우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0%로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95年度에 62個 課題인데 基本研究課題는 38個이고 나머지는 受託 및 協約課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38個 課題인데 내년도에는 35個 課題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1個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늘어난다면 금년도에 38個 課題에서 36個課題로 2個 課題가 줄게 되겠습니다.

受託課題는 내년도에는 좀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受託課題를 하다 보니까 基本研究課題를 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또 受託課題 때문에 外部人力을 많이 쓰게 돼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受託研究 課題를 내년도에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研究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아까 梁委員님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報告를 드렸습시다만, 사실 몇 %가 반영되었느냐는 퍼센티지는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研究課題 내용이 전체를 받아 건수별로 퍼센티지를 낼 것인지 아니면 課題內容에서도 일부가 반영되는 것이 있고, 2/3가 반영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퍼센티지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 研究管理審議委員會를 할 때 交通局長이 그 당시 諸

他龍 局長입니다만 交通研究 부분의 경우는 100%가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 都市計劃局長을 하던 崔在範 局長은 80%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그쪽 問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다른 研究機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大學하고 달라서 調査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研究報告書를 만들고 또 나중에 연구의 審議를 세 번 거칠 때 審査委員 6名 中에서 서울시의 職員 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하는데, 이런식으로 내용을 짜라,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무엇 研究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을 연구를 좀 더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研究內容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시議會의 要求가 왜 안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시議會의 位相定立에 관한 研究라고 해서 서울시議會가 要請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아마 資料를 보내드려서 받으셨을 것으로 하는데 서울시議會 位相定立에 관한 研究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는 또 議員님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애로가 있었는지 그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議員님들도 몇 분을 모셔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많은 協助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研究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안 들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서울시議會 요구를 안 받아준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오히려 말씀을 하시면 다른 것보다 더 앞장서서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서울시議會에 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물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셨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研究成果를 議會에 報告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可樂洞 農水産物市場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만 하시면 가서 다 報告드립니다. 報告드리고 책자도 다 보내드렸는데 사실은 책자도 원래 內務部에서 承認해 준 豫算대로 하면 委員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책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議會에다 資料를 보낼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해서 다른 데 아껴서 만들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委員님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들의 意見聽取를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意見聽取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앙케이트조사를 해서 앙케이트조사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社會開發研究部の 福祉問題라든지 福祉施設 이런 것은 앙케이트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들 앙케이트조사에 관해서는 아주 專門팀이 있어서 아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研究報告書를 만들고 저희들이 討論을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조사하는 내용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財政問題에 대해서 研究한 결과가 없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財政問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구정진단 모형을 하나 만들었고 이것도 報告書가 곧 나오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委員님께 보내 올리겠습니다. 구정진단 모형이 나와 있고 財政진단모형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나오면 報告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財政쪽에는 두 가지를 지금 연구를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財政問題쪽에는 연구를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聖水大橋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安全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한 件도 연구를 안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參考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研究員들이 앞으로 危機管理問題, 安全診斷問題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서울시에다 몇 번씩 研究課題에다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이것이 뭐냐 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저희들이 넣으면 또 빼버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安全診斷에 대한 外部用役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報告書を 보내드렸을 텐데 못 받으셨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安全診斷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기록집을 만드는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안전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冊子를 만들면 역시 보내드릴테니까, 아주 굉장히 두껍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研究員의 研究實績에 대해서 어떻게 評價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人力과 豫算을 가지고 研究員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研究成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희들은 가급적이면 현실에 동떨어진 研究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調査를 많이 하고 또 關係되는 분들의 意見을 많이 들어 보고 그래서 研究를 더 해서 좀더 질 높은 研究報告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研究管理審議委員會에 대해서 많은 質問을 해 주셨는데 研究管理審議委員會가 1년에 두 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今年初에 개최를 했었는데 年初하고 年末하고 두 번을 합니다. 앞으로 연말에 다시 또 12月初나 아니면 11月末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12月 10日 내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研究管理審議委員會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研究管理審議委員會를 하게 되면 내년도 96年度 研究課題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確定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초에 研究管理審議委員會를 개최하게 되면 95年度에 연구한 모든 成果, 이것에 대한 報告를 전부 하고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 연초에 한 것은 94年度에 研究成果物에 대한 것을 報告를 받고 그것을 檢討해서 承認한 것이 되겠습니다.

梁委員님께서 도대체 會議時間이 얼마 안되는데 그 많은 課題를 어떻게 審議하는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研究管理委員會에서는 그것을 審議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별로 專門家들에 의한 審議委員會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審議를 합니다. 研究課題 착수할 때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審議委員會가 있고, 또 중간에 審議를 하고, 전체적으로 審議를 하고, 여기 報告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課題別로 여기에 院長과 基調室長, 關係 專門家들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研究審議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제가 研究管理審議委員들 한테 심의를 더 철저히 해 달라고 해서 博士學位 論文 때 누가 審査했다는 것이 앞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研究報告書에 보면 첫번째 研究題目인데 審査委員은 누구 누구다하는 것이 외부의 專門家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審査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市の 경우에도 이제 課長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시다만 이 분들도 점수를 매깁니다. 그렇지만 이 점수는 서울市에서 參席한 公務員들이 매긴 점수는 저희들이 이 분들의 勤務成績評價를 할때 점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서울市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고, 나머지 분들로 專門家들하고 그 분들로 연구 처음 나온 점수를 가지고 勤務成績評定도 하고 또 그 分의 人事考課도 매긴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것이 研究管理審議委員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研究管理審議委員會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전부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都市基本計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93年度부터 都市基本計劃에 대한 구상을 전부 해오고, 연구를 해오고 區에서 제시된 區의 都市基本計劃을 전부 收斂해서 바탕으로 해서 서울市的 都市計劃을 立案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市 都市計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에서 만든 區의 都市計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調整하면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區의 自治區의 意見도 그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意見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들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상징가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擔當部長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研究部長 金光中; 都市計劃研究部長입니다. 梁委員님께서 質問이 많으셔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基本計劃이 왜 善心性 事業들, 5大戰略據點이라든지 국가상징가로라든지 이런 政治的으로 불순한 動機가 있는 듯한 사업들을 왜 都市基本計劃 속에 포함시켰느냐 이런 指適이 하나 있으셨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는 質問이십니다.

두번째는 信念이 옳았다고 생각해서 했으면 왜 市長을 說得시켜야지 再檢討를 하는 것이냐, 원래 잘못 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두번째이고, 세번째는 再檢討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세 번째, 네번째가 自治區 지난번 會議 때 완벽하게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몇 年間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 市民意見 수렴이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냐는 質問이 네번째이고, 다음에 다섯번째가 5大 戰略據點開發計劃이 首都圈 政策에도 위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研究院의 솔직한 평가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섯번째라고 보고, 여섯번째는 지금 基本計劃은 한편으로 再檢討되면서 市廳에서는 여러 가지 施策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여섯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일곱번째가 基本計劃을 最終決定한다는 시점이 政治的으로 타이밍이, 政治的인 복선이 깔린 것이 아니냐, 왜 그때 하느냐 이것이 일곱번째 질문으로 저는 理解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제가 다 설명드릴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

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善心性事業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質問은 맨 마지막 質問, 이 基本計劃이 終了되는 시점이 政治적으로 미묘한 시점이 아니냐는 質問과 결부되는 대답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院長님도 계시지만 政治적으로 철저히 중립을 지키자, 그리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市에서 政策決定하시는데 충분한 情報를 제공해 드리고 그 분들이 충분한 根據 위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研究院의 역할이지 政治적인 판단에 따라서 課題를 포함시키거나 課題內容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5大 戰略據點이라든지 상징가로 같은 것이 政治적으로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어도 일을 할 때는 국가중심가로라는 것은 우선은 車한테 빼앗긴 都心部를 市民들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 이제 사람을 위한 都心部가 되어야겠다, 걸어도 다닐 수있고 유모차도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장애인들도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都心部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고, 두번째 지금 말살되어 가고 있는 지난 한 30年間 급속한 개발 속에서 우리 역사유산이 다 무너졌습니다. 都心部는 사실상 세계적으로도 類例 없는 역사의 寶庫라고 보는데 하루 속히 그 歷史性을 回復해야겠다. 그것이 마침 市廳舍 建立 敷地選定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그것을 研究하는 가운데 市廳도 歷史性을 회복하면서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南大門도 國寶1號이지만 가까이 가볼 수도 없고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상태입니다. 그것까지 한꺼번에 交通을 정리해가면서 都心部를 市民에게 돌려주는 機會를 가지면 좋겠다는 意見을 市廳에 報告를 했습

니다. 그 報告를 한 것을 市廳이 발표한 時期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영역을 훨씬 떠난 것 같습니다.

두번째, 5大 戰略거점에 대한 것도 아까 5번째로 정리한 5大 據點에 대한 評價問題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首都圈政策과 우선 배치되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인데 首都圈政策도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서울에 그 동안 무조건 抑制해서 國家競爭力을 생각하면서 首都圈이 꼭 맡아주어야 될 機能, 예컨대 보도중추관리기능이라든지, 業務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高度尖端機能 같은 것은 역시 首都圈에 들어와야지, 그리고 서울에 중추관리 機能이 있어야지 우리 나라가 살아남겠다 하는 식의 首都圈 政策도 회전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市를 인해서 생각할 때 서울이 지금 상당히 産業構造가 변하고 있습니다. 産業構造가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産業構造에 따른 空間需要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960年代 서울에 10層 이상이 넘는 建물이 3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10層 이상이 넘는 건물이 885개가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최근에 생긴 것들입니다. 최근에 都心部에서 麻浦에서 그리고 테헤란로에서, 汝矣島에서 매일 끊임없이 크레인이 걸리고 건물이 솟아나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매년 60萬坪에 이르는 業務空間 需要 때문입니다. 60萬坪이란 부분은 매년 汝矣島만한 業務空間이 매년 늘어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인가는 받아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받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큰길변에 무질서하게 들어서서 뒤에 주거지에 주차문제가 생기고, 그 건물 뒤에 음식점이 생겨서 주거지가 망가지고 하는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어

떻게 수용할 것이냐, 業務空間 需要, 매년 백만명씩 늘어나는 商業, 其他 需要 그리고 지금 엄청난 교통혼잡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막 커가는 것을 방치했을 때 大衆 地下鐵이 지원 안 되는 곳으로 開發이 갈 때 늘어나는 交通需要, 그리고 거기에 따른 環境汚染, 이런 것 때문에 開發을 어디론가 체계적으로 大衆交通手段과 연결을 시켜서 엮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5大 戰略據點이라는 5大 地域 개발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하나 볼 때 당장 開發하면 交通問題가 있겠느냐, 人口集中問題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提案했던 것은 하루아침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하나 하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汝矣島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汝矣島에 地下鐵 3期 工事が 끝나면 3個 地下鐵이 깔리게 됩니다. 3個 地下鐵이 깔리고 20個 이상의 버스노선이 생기는 것은 外國의 類似한 개발사례, 이 정도 規模를 가지고 3個의 地下鐵 路線과 이십 몇개의 버스 노선이 있을 때 交通處理可能 容量을 저희들이 충분히 체크해 보고 決定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 麻浦大橋 라든지, 西江大橋 확장문제, 지하철 설치문제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타임스케줄을 잡았던 것이지 그런 것을 考慮하지 않고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이런 無謀한 것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모하게 했다가보다 長期的으로 그것을 보면서 서울의 틀을 짜나가라는 이런 뜻으로 基本計劃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質問으로서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을 충분히 市長님께 理解를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희들도 報告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전달을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基本計劃을 成案 과정에서 전체적인 優先順位라든지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서 定都600年과 관련해서 다소 낙관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補完한 作業이 크게 한 5가지 점에서 補完을 했는데 첫째는 현실에 대한 診斷입니다. 현실에 대한 診斷이 당초에는 世界化, 情報化 등해서 21世紀를 맞이하는 서울의 樂觀的인 面을 많이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聖水大橋라든지 三豐百貨店 事故가 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저희들의 또 다른 현실인식에 있어서 高度成長에서 누적된 현안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미래준비의 필요성을 提示했고 비전을 再定立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樂觀的인 未來像을 제시했었는데 보완내용은 주로 人間中心의 살고싶은 都市 이런 쪽으로 비전을 再定立하고, 施策方向도 당초에는 완급없이 여러 가지 추진과제들을 提示했는데 이번에 보완한 내용에는 먼저 해야 되는 課題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나누어서 提示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基本的으로 제시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큰 변화라기보다도 그 내용을 실천하는 순서가 우선 1段階로 生活環境改善을 우선 추진하면서, 交通, 環境, 社會福祉에 중점을 두고 法令 및 制度整備를 해 나가자, 그것을 1段階로 보고 또 2000年 이후에 그런 것을 계속 推進해 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準備를 하자 이렇게 추진 原則을 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基本計劃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사람 中心 그리고 市民生活의 質 위주로 社會福祉라든가 交通, 環境, 文化 같은 것들이 사실상 기존의 연구가 그 쪽으로 많이 가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내용적으로 新任 市長님의 생각과 기본개념은 크게 다르

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施策, 지금 일어나고 있는 市廳이 발표하는 施策들이 基本計劃과 다 점검이 되고 일치하는 것이냐 하는 質問에 대해서는, 저는 基本計劃의 성격이 우선은 모든 市에 하나 하나의 결정을 다 指摘해 줄 수는 없는 성격입니다. 이 計劃이 원래 20年 앞을 보면서 서울의 커 나가야 할 方向과 골격을 잡아주는 計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여기의 방향에 부합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對 1의 對應關係는 상대하기가 사실상 基本計劃 자체가 성격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지금 나오는 일련의 발표되는 施策들을 볼 때 큰 방향이 이런 人間中心, 市民福祉生活의 中心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基本計劃의 精神에는 符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答辯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補充質問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補充質問하십시오.

○梁敬淑 委員; 本委員이 서울시議會 一部分의 議會에서는 外用役을 依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서울시議會的 位相에 관한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議會에는 서울市民들의 생활의 質의 向上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지 議會自體의 位相을 어떻게 강화시켜 달라는 그 표현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조금 答辯의 방향이 안 맞았던 것 같고요.

다음에 研究管理審議委員會에서 研究과제에 대한 확정을 하고 또 평가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5年度 下半期 研究課

題는 95年度 下半期가 시작하면서 研究課題에 대한 檢討와 確定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5年度에 삼십 몇 건의 研究課題를 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研究管理審議委員會는 연초에 한번 열고 아직까지 안 열었거든요, 앞으로 열 계획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열 계획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을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研究했던 내용은 언제 點檢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열어서 하반기에 研究課題를 검토해서 확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도무지 理解가 안 되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專門家들로 研究課題를 深度 있게 分析한다고 그랬는데 研究院에서 提出한 資料를 보니까 이것이 몇 년도 것이라는 부분은 年度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審議를 한 課題의 時間을 보니까 1時間짜리도 있고 1時間 半 내지 2時間 동안에 연구했던 내용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만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한 몇 명이 모여서 하나의 研究課題를 審査하는 과정에 1時間 半 정도 가지고 과연 심도있는 研究를 했다고 判斷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강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事前에 1時間半 이전에 어떤 節次를 통해서 研究에 대한 심도 있는 分析을 해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時間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그친다라는 評價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都市基本計劃을 주관했던 市政開發研究院에서는 아직도 국가상징가로라든지 5大據點都市開發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고 또 지극히 合理的인 論理를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분명히 市長은 就任 以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市政開發研究院에 再檢討을 要請했고, 市政開發研究院은

아무 말없이 再檢討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취지에서 잘못을 認定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타당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豫算이 들어가지만 주장을 했었고 研究課題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研究院이 좀 再檢討를 하고 솔직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아까 指摘한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隨時로 어떤 계획과 서울시의 據點都市開發이라든지 또는 어느 地域에 대한 개발을 수시로 터뜨리고 있고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都市基本計劃과 전혀 違背되거나 都市基本計劃 안에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이 작은 동네의 무슨 개발하는 부분을 都市基本計劃案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독섬이라든지 汝矣島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계획이에요. 이런 부분이 研究院에서 研究 따로 서울시에서는 선심적으로 막 수시로 내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합의가 되고 意見調整이 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를 묻는 것인데, 이것이 서울시를 市政開發研究院이 研究機關이 옹호하는 것처럼, 市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計劃案에 다 들어있다고 판단한다는 억지 아닌 억지의 論理를 편다라는 것이 理解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指摘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質問하고 싶은 것은 94年度에 서울시는 市政開發研究院에 서울시廳舍再建築에 대한 用役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올해 4월에, 이것이 몇 億원짜리 용역이었던 것 같은데 現 廳舍에 짓겠다는 발표를 崔秉烈

市長이 했었습니다. 그럼 市政開發研究院에서는 제가 判斷할 때는 충분한 節次를 거쳤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8個 地域 敷地를 검토를 충분히 했고, 또 市民委員會를 구성해서 公廳舍도 거쳤고, 충분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新廳舍를 再 建築하는 부분이 現 廳舍에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다 라는 결과를 提出해서 이것을 市長이 발표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조순 市長 就任 이후에 廳舍部分에 대해서 再 檢討를 요청했다가, 또 얼마전에는 東京을 방문하더니 東京청사가 멋있어 보였는지 市長이 청사를 다시 100年 앞을 내다 보는 廳舍를 짓겠다, 그래서 任期 동안에 300億원씩 매년 基金을 造成하고 내년에는 3億원의 豫算을 올려놓았습니다, 廳舍敷地를 알아보는 비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市廳舍再建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案을 냈던 市政開發研究院은 市長의 이런 政策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企調室長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調整室長 韓泳奏; 먼저 저는 研究課題審議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基本課題가 있는데 이 基本課題를 수행하는, 課題를 발굴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아까 院長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것을 審議하는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일 처음에 課題의 着手審議가 있는데 이 課題. 다시 말하면 어떤 課題는 서울시에서 발굴된 課題도 있고 어떤 과제는 저희 研究院에서 발굴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저희 研究院間에 研究發展委員會가 있어서 거기의 檢討를 거쳐서 課題가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課題는 38個課題

지만 내년도 課題는 36個 課題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課題에 대해서 연초에 착수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착수연심이라는 것은 서울市에서 과제의 연구수행 방침서가 나옵니다. 대개 이 研究結果가 나오면 市에서는 이 研究結果를 가지고 어떻게 活用하겠더라는, 다시 말하면 主務部署로서의 役割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그것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인가라는 研究 課業에 대한 전체 事業計劃書를 발표합니다. 그때에는 여기에 나온 대로 審議委員이 6분이 과제별로 推薦이 되어서 거기에서 면밀히 주로 어떤 方法論으로 할 것인가, 이 方法論으로 했을 때는 다시 말하면 精確한 答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方法論에 대한 審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研究課題가 進行되는 中間정도에 가서 그런 方法論을 한 것 에 대해서 中間審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審議委員들 이 나와서 中間審議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最終審議를 하는데 最終審議에 대한 審議日程을 38個 課題에 대해서 저희가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最終審議에 대한 報告書를 미리 審議委員들한테 1주일전에 전부다 發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들은 그 審議報告書를 갖다가, 研究報告書를 전부다 熟知하고 읽고 와서 그리고 研究責任者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한 뒤에 着手審議나 中間審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市에서 원하는 研究遂行方針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審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研究院에는 會議室이 4個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날에는 審議가 한 3個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方法별로 同時多發的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이것이 30分한다거나 1時間하는 것이 아니라 2, 3時間 내지 시간제한없이 審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審議結果는 아까 院長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앞으로 補完을 해서 出刊에 관한 것을 審議委員들한테 評價를 받고, 하나는 研究 質에 대한 評價를 받고 2가지 作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研究 課題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도있게 評價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研究 課題審議委員會에서는 이것을 개별적인 하나 하나의 과제에 대한 評價보다 총괄적인, 총체적인 과제의 이것을 報告하고 그것을 출간에 대해서 審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審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한 가지 또 追加로 보고말씀드릴 것은 연초에는 研究管理審議委員會를 열어서 하고 後半期 課題는 다시 또 열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서울시하고 1年 동안의 모든 研究課題를 미리 정해서 다 확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中間에 6月이나 여름때 다시 열 필요는 없습니다. 열 필요는 없고 다만 研究課題를 承認하는 것과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審議를 해서 冊子를발간해서 配布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만 연다는 것을 아울러 報告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國家象徵街路하고 5大 據點管理에 대한 質問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再檢討를 했습니다. 市長께서 너무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개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都市計劃局에서 조금 잘못 報告가 되었습니다. 報告하는데 都市計劃局長보고 報告書を 만들 때 요만한 것 한 장에다 報告書を 만들어

서 해라, 그러니까 골자만 뽑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그냥 5大據點 그것이 막 나오니까 너무 물리적으로만 한 것이다 해서 당시 市長님이 三豐事故 이후에 내 任期 동안에는 건물 하나도 안 지어도 좋다, 부서지지 않도록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만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報告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都市計劃局長 보고 아니, 내용을 다 보고해야지 그런 식으로 報告를 하니깐 그렇지 않아도 자꾸 부서지는데 建設하는것만 이렇게 인식을 잘못 가지시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이후에 다시저희들은 市長님 方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그런것도 補完을 많이 하면서 물리적인 計劃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都市計法上으로 都市基本計劃은 뭐냐, 이것은 물리적인 建設計劃입니다, 원래 都市計法上에 있는 計劃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밖에 인간적인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은 經濟社會發展計劃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都市基本計劃 자체는 사실 물리적인 계획입니다.

다만, 설명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은 判斷을 해서 市長님 方針을 받아서 그것을 補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龍山基本計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렸더니 이것은 참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이 되셨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곡地區하고 상암地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이밍을 훨씬 늦춰야지, 2005年 이후나 그때 해야지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미루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쳐야 될 것은 고쳐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똑섬 같은 것도 다시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쳐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수시로

開發을 한다고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都市基本計劃에 포함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連繫性이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다면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建築許可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高層으로 許可를 내준다, 어디인지 대개 짐작을 하시겠습니까만. 사실 저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交通이 痲痺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高層을 許可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못마땅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都市基本計劃 그것하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市 廳會 재건축 問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아까 梁委員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하지 않고 가능한 案을 전부 提示해서 長短點을 첨부해서 判斷하실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원래 저쪽의 要請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을 전부 찾아보니까 8個 案이 나왔습니다. 8個 場所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長點이 있고 어떤 長點이 있다는 것을 어떤 先入見을 갖지 않고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市民委員會를 構成해서 저희들이 가서 전부 그대로 똑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說明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市民委員會에서 決定'을 한 것이고, 당시 崔秉烈市長께서는 市民委員會의 決定을 無條件 따르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당시의 결정이 바로 現 市廳舍가 좋다.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現 廳舍로 하는 것으로 先入見을 갖고 결론을 내놓고 나서 다른 案을 만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梁委員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별로 이 지역을 만약에 서울市廳舍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쪽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는 구상을 대충은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東京都에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달라진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래 構想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현 서울廳舍를 거기에다 한다면 그것을 몇 층으로 높이 올리고 다음에 뒤의 프레스센터하고 2層, 3層, 몇 층을 연결해서 그 쪽도 좀 하고, 앞의 프라자호텔 그 쪽하고 앞의 우리 광장이 라는 것이 지금 서울市廳 앞에 차가 막 다니는데 그것을 전부 차가 안다니는 것으로 해서 저쪽으로 迂廻시키도록 하면서 걸어서 市廳앞에서 프라자호텔까지 가서 시민광장으로 만들어서 이쪽을 議會에서 쓰든지 하여튼 마주보게 해서 해보자, 이런 구상을 했던 것은 이것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다른 데도 비슷한 方法으로 전부 좋은 구상을 다 開發해서 判斷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理解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趙市長님께서 東京都 보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제가 趙市長님한테 말씀 못들었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現 廳舍로 그대로 짓는다면 방금 구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아까 資料要請해서 받은 것 中에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龍山地域開發基本計劃 用役契約書, 用役契約書의 着手 年月日, 契約年月日 해서 94年12月 22日인데, 契約期間이 1994年 12月 22日에서 1994年 12月 31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契約期間을 잘못 쓴것인지 원래 이런 것이 맞

는 것인지 해서 契約期間이 8日밖에 안된다는 것이 우선 事理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착공신고서를 보면 착공신고서에 착공일 契約日字가 1994年12月 22日 착공 일자가 1994年 12月 22日, 준공기한이 1994年 12月 31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994年 12月 31日 준공기한이 된다고 되어 있고, 공정표에도 보면 준공기한이 1994年 12月 31日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契約書 자체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선 모르겠어요.

○會計課長 이후성; 答辯을 좀 드리지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契約을 하는데 會計年度가 1年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月말이 회계연도 말이기 때문에 서울시 地方財政法에 보면 資金契約은 12月末에 하더라도 준공기한은 12月末까지로 했다가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연기를 해 줍니다, 會計年度 때문에. 그러니까 會計法上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主務部署에서는 물론 6個月이다, 7個月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本廳 會計課에서는 12月末로 잘라야 됩니다.

일단 잘랐다가 그 다음年度 1월에 가서 그쪽에서 연기를 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再契約을 합니다. 再契約 形式은 다시 재계약을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覺書로 대신 해서 서울시 經理官하고 저희들이 契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럼 여기에 따른 覺書를 받아서 나오니까?

○會計課長 이후성; 네.

○委員長 文鎮珍; 競爭契約이요?

○會計課長 이후성; 네.

○委員長 文錫珍;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會計課長 이후성; 네.

○梁敬淑 委員; 아까 제가 答辯을 다 못들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92년부터 실질적으로 2011年 都市基本計劃案이 檢討되기 시작했었는데 내년 3, 4월에 이 부분이 確定되는 부분에 대한 答辯을 안해 주셨습니다. 이 都市基本計劃案이 확정되면 굉장한 과장과 엄청난 땅값. 그 주변일대의 땅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부락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2011年 都市基本計劃案을 再檢討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市政開發研究院 쪽에서는 自治區의 意見이나 市民이나 市의 立場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강변하고 계시지만 本委員이 判斷하기에는 自治區의 意見이나 또는 議會, 市民들의 意見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再檢討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서울시는 물론이고 議會나 시민들 또 自治區의 意見이 반영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불만이 있더라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抗議나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서울시가 3년이 되는 市政開發研究院의 研究成果를 評價하면서 서울시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 중에서 앞으로 3年 동안 重點적으로 研究해야 될 方向이 무엇이라고 判斷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答辯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研究部長 金光中; 우선 基本計劃 再檢討件만 說明

드리겠습니다.

지금 梁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91年 11月부터 自治區 基本計劃을 하면서 公廳會도 따라 나가 보고 또 基本計劃한 것을 받아서 또 조성도 하고 이런 役割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基本計劃 기존의 것을 再檢討하고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 3年에 걸쳐서 事前作業을 했지만 저희들도 이것이 완벽한 수준이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예정된 일정이 현재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基本計劃案이 되게 만들어 낸 다음에 조순 市長님 오셔서 상당히 여러 가지 未洽한 것을 指摘해 주신 것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再檢討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2月 中旬 쯤에 우선 第1次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 때에 專門家뿐만 아니라 區의 代表 그리고 市民들을 모시고 아주 격의없는 基本計劃에 대한 과정을 거치려고 市하고 協議 中에 있고, 저희들도 지금 서울市에 들어갔고, 그것을 해가지고 한번 더 내년에 가서 또 한번 거치고 해서 意見收斂을 거치는 과정이고 내년 3월에 마무리지을 計劃으로 있는데, 이 基本計劃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外國 都市에도 보면 의견수렴이 都市全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 남은 기간 최대한, 어차피 基本計劃이기 때문에 주로 의견수렴이 職能別 代表라든지 地域의 代表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만, 가급적 신문상이나 이런 데 최대한으로 발표되도록 해서 一般市民들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基本計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推進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리고 앞으로 3年 동안 重點的으로 研究해야 할 분야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世紀를 맞고 있는 서울이 과연 다른 나라의 잘 되어 있는 大都市와 비교해 볼때 우선 도시의 計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道路率이 문제가 아니라 道路의 효과성도 상당히 낮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으면 바로갈 수 있는 것을 길이 없어서 빙빙 돌기 때문에 쓸데없는 交通需要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고쳐나가는, 道路率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고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東湖大橋를 건너오게 되면 바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할 수 없으니까 괜히 빙빙 돈다든지, 永東大橋를 江北에서 江南으로 건너가면서 좌회전하면 될텐데 좌회전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서 U턴해서 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일대가 혼잡에 빠지고 그러는데 우선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도로의 效率生을 높이는 方向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綠地와 環境問題 그런 것들이 저희는 外國都市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設置되지 않은 公園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빨리 公園으로 조성하고 그래서 뭔가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밖에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도시, 밤에 겁이 나서 무서워서 못다니는데 그건 것은 우선 福祉를 따지기 전에 基本的인 都市의 要件이 아닌가, 그런 낙후되는 문제점 그런 것부터 빨리 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時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都市計劃 뿐만 아니라 앞으로 市政開發研究院에서도 研究課題나 研究方向을 中長期的인 계획을 세워서 深度있는 研究가 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서울시가 요구하는 研究를 하기에 급급하고 여기저기서 用役 들어오면 用役研究課題 내기에 급급한 研究院이 지금까지는 되어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研究院 자체적으로 서울市民들의 삶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環境이나 福祉問題뿐만 아니라 中長期적으로 研究課題 計劃을 세우고 검토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서울市政開發研究院이 아까도指摘했지만 行政機關의 行政執行을 하는데 正當性이나 合理化시켜주는 研究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機關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銘心하셔서 시민들을 우선으로하는 研究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期待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면 제가 잠깐 아까 그 부분 追加적으로 質疑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合意覺書를 받아보니까 契約期間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변경되는 기간은 서울시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식이 아니고 市政開發研究院에서 契約期間을 변경하는 식으로 合意覺書를 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게 제가 말입니다. 그것을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 쪽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처럼 전부 慣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조금 理解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은 이를

테면 遲滯償金 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라구요. 契約期間을 준수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연기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합의를 해준다는 이런 경우로 했는데.....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市에서 公務員들이 責任을 안지고 빠지고 모든 것을 이쪽에다 씌우려고 그렇게 문안을 만들었는데 委員長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울시 公務員의 의도대로 인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委員님들 잘 아시겠습니까만, 財務經濟委員님들이 잘 아시겠습니까만 年度末에 가서 契約을 체결하고 事故移越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事故移越은 원래 制度를 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支出原因行爲를 해서 契約을 체결한 다음에 정상적인 것으로 했으면 11月末에 끝나고 12월에 竣工檢査를 하고 모든 것을 支出完決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는데 11月末에 와서 별안간에 異常氣溫이 되어서 눈이 1미터씩 쌓여서 도저히 끝맺음을 할 수 없다, 끝이 안 났는데 돈을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럼 業者 잘못도 아니고 서울시 잘못도 아니고 天災地變이다, 이것은 부득이한 事故다 이래서 그런 경우에 事故移越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우리는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用役을 해달라, 그럼 내년도에 가자, 내년도에 1月 5日쯤에 契約을 하자, 그럼 현재 豫算 있는 것이 不用額으로 다 넘어가니까 안 된다, 지금 당장 契約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앞으로 財政運營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基本計劃과

또 追加計劃이 있었어요. 基本計劃은 5,830萬원 세우고 追加計劃은 다시 1억6,100세워서 2억 1,930萬원으로 했는데 왜 한 가지로 하지 못하고 똑같은計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都市計劃研究部長 金光中; 그것은 제가 說明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龍山開發基本計劃 用役課題가 高速電鐵 問題와 關聯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高速電鐵 中央驛舍 立地에 대해서 建設交通部, 그러니까 옛날 建設部, 鐵道廳 쪽은 서울驛을 주장했고 서울시에서는 龍山이 좋다고 해서 상당기간 政策對決을 벌이다가 그러면 한번 같이 서울시가 龍山을 묶어서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보자 까지 하는 것이 얘기가 되어서 서울시가 일부 用役費를 내고 일부는 高速電鐵管理公團입니다, 그 당시에. 高速電鐵管理公團에서 研究費를 내서 4億원 규모의 研究課題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우선은 鐵道廳에 돈을 충분히 3億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한 5,000萬원 정도 들여서 우선 發注를 하면서 契約에 特殊條件을 달았습니다. 이 課題는 高速電鐵管理公團과 共同研究를 전제로 한 것으로써 高速電鐵管理公團에 用役발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契約條件에 課業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한다고 特殊條件을 달아서 5,800萬원으로 해서 우선 저희가 연구를 着手를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高速電鐵管理公團쪽에서 그 쪽 일이 推進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契約變更을 한 것이 그렇게 같은 일이면서 두 가지 일이 된 것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리고 한 가지 委員님들께 報告드릴 것은 지금 建設交通部하고 高速電鐵管理公團에서는 서울驛에다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

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서울驛에 하게 되면 釜山에서 高速電鐵이 들어오더라도 하루에 51회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湖南線까지 하면 80회 이상이 들어오는데 서울驛이 堪當을 못합니다. 현재 낡은 건물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龍山에 한 것은 앞으로 龍山에 8軍 기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 東西高速電鐵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 龍山으로 연결시키고 永宗島도 그쪽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센터를 만들면서, 龍山の 경우에는 背後地域이 넓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綜合的인 計劃만 잘 세우면 아주 멋지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研究員들을 불란서에 地下鐵의 驛勢圈開發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데를 일부러 보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建設交通部나 또는 高速鐵道에서는 서울驛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大統領한테 報告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받아서 豫算의 일부를 執行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꾸게 되면 그 쪽의 公務員 몇몇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도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用役을 하면서 高速鐵道 자기네들 建設交通部가 用役을 같이 하자고 한 것은 뭐냐하면 國土開發研究院이 주된 用役者가 되고 서울市政開發研究院은 그 밑에 들어가서 하라 이렇게 그 당시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울市는 정말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고 강력하게 對立하고 하면서 하다보니까 저 쪽에서 돈도 또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 잘려서 같이 하려다가 저쪽에서 전혀 영

똥한 얘기를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이 用役契約書 말고 별도의 契約書가 또 있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어떤?

○委員長 文錫珍; 여기에 관한 用役契約이 지금 이 基本計劃과 追加用役契約書가 이 내용 말고 별도의 契約書가 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한테면 그러한 내용을 特約 비슷하게 하셨는데.....

○都市計劃研究部長 金光中; 첫번째 契約書 맨 마지막에 特殊條件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特殊條件이라고 붙어있다고요? 따로 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내용도 같이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都市計劃研究部長 金光中;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리고 하나 여쭙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用役을 하시게 되면 여기 여러가지 支給費用이 나가게 되는데 支給費用에 대해서 여러가지 豫算을 세우셨어요. 豫算을 세우고 집행이 되는데 執行될 때 예를 들면 人件費에 責任研究員 人件費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責任研究員에 대해서 定額으로 나가는 급여가 있을텐데 그 급여를 이렇게 사업별로 나누어서 豫算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별도로 이 事業에 또 다시 人件費가 執行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人件費에는 正規職 人件費用 들어가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正規職은 없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委員長 文錫珍; 외부에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럼 여기에서 표현된 責任研究員이라는 것은 責任研究員級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研究를 못하더라도 외부 사람들에게 責任研究員을 맡기고 외부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그 研究結果가 제대로 깊이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正規職員을 研究博士를 責任研究員을 研究責任者로 해 놓고 최소한 監督하게 하는 그것은 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럼 감독하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豫算이 감독하게 한 그 豫算은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委員長 文錫珍; 그리고 委託研究費가 거의 事業마다 거의 다 들어가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專門性이 외부에 더 있기 때문에 委託研究를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 보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用役契約만 많이 따가지고 外部에 다시 下部給 주듯이, 下請에 再下請 주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한 것을 핸들링하고, 아까 표현했듯이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그런 役割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批判을 받을 수 있어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것은 저희들이 用役을 받을 때, 受託用役을 받을 때 受託課題審議委員會라는 것을 따로 두어서 이것을 受託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檢討시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안 된다, 못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보내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없다보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받아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것은 안 되겠다.

受託課題를 서울시에서 要請한다고 해서 다 받지 말고 檢討를 해 보고 하자고 해서 受託課題審議委員會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 다시 또 다른 條件을 提示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研究課題를 못한다고 하면 用役費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누구한테 다시 再委託을 준다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아주 조건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 것 입니다.

그런 것은 參考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맡고 管理部分 이것 하는 것은 研究를 여기에서 잘 하니까 하고, 하기 곤란한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다른 데에 어디에다 다시 再委託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條件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契約할 당시에 거의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럼 우리가 받은 基本課題와 受託課題 중에서 委託研究를 준 內譯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별도로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죠.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리고 하나 더 여쭙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研究業務協議會議費라든지 이런 費用도 있고 즉 課題別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業務協議會議費 이런 경우에는 혹 그쪽에 委託研究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委囑한 責任研究員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비용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쓰고 그 研究課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안 씁니다. 研究課題와 관련된 사람 또 研究課題를 수행하면서 諮問會議를 열었다든지, 외부사람을 불러다가.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區分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걸 研究院에서 參與가 되더라도 그쪽 費用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研究院費用으로 쓰입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受託課題 말씀입니까?

○委員長 文錫珍; 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수탁課題는 그쪽 비용으로 씁니다. 受託課題 나와있는 비용으로 씁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 事業費 豫算으로?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럼 研究院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단 事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事業費로 쓰는 것이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렇죠?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그것은 아주 구분을 하고 그 게 혼동되면 안 되겠더라구요. 분명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參與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테면 責任研究員으로서 명목상으로 전체적인 課題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들어가는 경우. 給與는 그쪽의 事業別 豫算에서 給與는 받지 않지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결국 그 事業을

위해서 비용을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쓰여지는 것이고, 다음에 별도로 이를 떼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會議費로 쓰이게 되면 그것 역시 會議費로 쓰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事業을 위해서 出張을 갔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事業費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市政開發研究院의 給與費가 아니죠?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아닙니다.

○委員長 文錫珍; 그래서 우리가 費用을 判斷할 때 이를테면 市政開發研究院에서의 비용이 이런 전체적인 職員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로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事業을 빼놓고 보면 그만큼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지적한 내용이 總額主義로 計上해 주어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맞지 않겠느냐, 豫算에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식의 誤解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55억원 그러면 55億원만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이 55億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30億원이라고 하는 受託課題가 있다고 하면 85억원이라고 봐야 하지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用役을 주는 것도 어차피 여기의 事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낼 때 總額主義로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말씀을 알겠는데 豫算을 編成할 때는 안될 것 같습니다. 豫算을 編成할 때는 受託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고 별안간에 해 달라고 하니까 豫算 때는 할 수 없는데 決算할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決算할 때는. 연말에 가서 決算할 때는 受託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해서 總額概念

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研究해서,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그런 方向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따로 만들어서 全體總額으로 한 번 하도록 하지요.

○委員長 文錫珍;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다른 質疑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終了를 할까 합니다.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저희가 특별히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해서는 院長님도 마찬가지로 전제 職員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저희들은 많은 期待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어떻게 政策에 대해서 助言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政策과 執行이 많이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그러한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 財務經濟委員會에서 거의 共感帶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더 研究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또 市政開發研究院에서 豫算에 대한 要求가 없더라도 그 豫算에 대해서 가능하면 市政開發研究院에서의 研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方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市政開發研究院에서도 저희들 市議會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趣旨를 심분 理解하셔서 정말 市民을 위한 政策이 여기에서 나오고 그러한 政策이 저희 市議會와 討議하는 과정은 앞으로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과 함께 諮問을

받는 機會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市에 실질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기 當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行政事務監査 시간 동안에 委員님들께서 계속되는 監査지만 진지하게 討議해 주시고 또 監査에 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市政開發研究院에서도 行政事務監査에 진지하게 質疑에 答辯하시고 여러 가지 저희 委員님들께서 갖고 있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追加的으로 要請하거나 또 書面으로 要求한 資料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市政開發研究院에서의 研究가 진정으로 우리 議會 뿐만 아니라 서울市民들에게서 환영받을 수 있는 政策結果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終了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05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文錫珍 鄭水華 李亮漢

金廣洵 白南善 梁敬淑

黃仁明 金相男 金勝建

盧載東 朴南植 金勝子

○專門委員

安錫洙

○被監查機關 參席者

市政開發研究院長 鄭世煜

企劃調整室長 韓泳溱

都市計劃研究部長 金光中

都市交通研究部長 趙重來

都市經營研究部長 崔炳大

資料電算室長 張英姬

總務課長 崔東根

會計課長 이후성